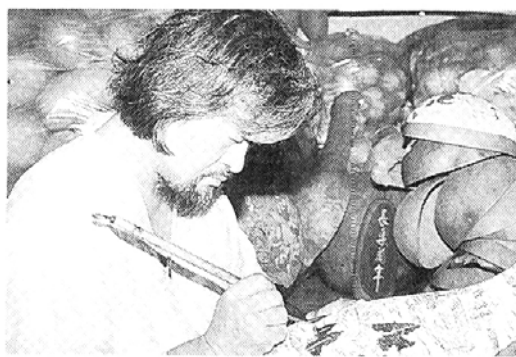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공예가 한경수씨

# “박에 불화 새기며 마음공부”

달빛이 교묘히 흐르는 달밤, 낮으막한 초가지붕위에 둥그렇게 달린 박덩이와 수줍게 핀 하얀 박꽃은 한국인의 마음의 영원한 표상이다. 정갈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이 한국인을 그대로 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관심속에서 저만큼 밀려난 박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불화를 그리고 박과 함께 삶을 꾸려가는 박공예가 한경수씨(51).

“대학 재학시절 친구래 과수원에 놀러갔다 달밤에 핀 박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박공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에 입체적 기법과 회화의 우아함을 접목한 기법으로 그린 불화는 설채하기 그지없다. 표피를 이용하는 종래의 박공예와 달리 걸을 때아래고 하얗게 드러난 속살위에 관음보살상과 반야심경 등을 새긴다. 처음에는 산수화나 글자 등을 주소재로 하였으나 박을 교배하면서 다른 두종의 박이 어울려져 하나의 박이 나오고 같은 종류의 박에서 하나가 잘 어울리면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함을 보며 자연의 순리를 터득하게 되면서부터 박에 불화를 그려넣는 일에서 법열을 맛보고 있다.



▷ '양산박'으로 불릴 정도로 '박'에 심취한 한경수씨의 박공예는 구도의 여정이라 할만큼 경건하다.

경남 양산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박에 작품활동을 하고 또 박을 이용한 무공해식품을 개발해 '양산박'이란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한씨가 오는 10

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우수제품상 시상식에서 식품부문 골든상을 수상하게 돼 화제다.

## 박식품 개발... 10월 파리에 골든상 수상 내년 일본서 대규모 박공예展 열 예정

“대학 재학시절 친구래 과수원에 놀러갔다 달밤에 핀 박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박공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에 입체적 기법과 회화의 우아함을 접목한 기법으로 그린 불화는 설채하기 그지없다. 표피를 이용하는 종래의 박공예와 달리 걸을 때아래고 하얗게 드러난 속살위에 관음보살상과 반야심경 등을 새긴다. 처음에는 산수화나 글자 등을 주소재로

“박은 옛날 우리가 즐겨먹던 고구려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을 천덕꾸러기로 여기는 반면 박고지를 초밥에 넣어 먹는데 일본에서 더욱 즐기는 식품이 된 것을 보고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음식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박식품을 개발하게 됐지요.” 그때부터 박식품을 연구해 지금은 박편, 박수제비 등을 개발해내 외국으로 수출 호평받고 있다. 정성껏 만든 식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93년 스페인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식품상에서도 상을 받았을 정도로 한씨의 박공예와

박식품에 대한 호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그만두겠지만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가고, 완전 무공해식품 보급이라는 국민건강차원에서 돕게 손을 놓지 못한다.”는 말로 작품활동에만 전념치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그는 박 식품사업을 마음놓고 맡길 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한경수씨는 내년 일본에서의 대규모 박공예전시회 준비로 바쁜 가운데 또하나의 문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작업장 뒤편에 위치한 신라시대 대규모 절이 있었던 운흥사지보존을 위한 ‘운흥사지보

존위원회’를 발족하는 일. 내달말 관동지역 스님 문화계인사들과 함께 ‘운흥사지보존위’를 결성해 우리 문화유적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양산=천미희 기자

### 화제의 전시회

황순철씨 '고인돌 마을' 동국조각회원전

## 서울서 호평... 지방나들이

○... 지난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 수상한 불자서양화가 황순철씨(40)가 9월 11~17일 서울 중경아트센터에서 '고인돌 마을'을 주제로 개인전을 가져 호평을 받았다. 급격한 산업화와 역사의 변

동속에서 잊혀져 가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우리미술의 정체성이라는 과제를 고인돌마을 그림을 통해 조형화한 황씨는 오는 11월 5~11일 광주 인제미술관에서 또 한차례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자를 주축으로 결성된 동국조각회원전은 이점원 흉낙기 진철문 조덕환 이미령 박경범씨 등 24명이 참여해 자신들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 황순철작 '고인돌 마을'.

▷ 동국조각회원전에 나온 이점원작 '키스'.

###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 시인으로 꼽히는 미당 서정주 특집

## “등단 60년 맞은 노시인 삶과 작품세계 조명”

난 인생을 약술하고 그 사상적 편력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청년시절 한때 경도됐던 공산주의의 극복과 자유사상의 넓은 범위로 나아가는 과정, 신라주의의 표방과 세계관에서의 얻은 느낌 등을 소상하게 밝히고 특히 몇몇 친일시 제작 과정과 그에 대한 회고를 토로

### 시와 시학 가을호 미당 서정주 특집

## “등단 60년 맞은 노시인 삶과 작품세계 조명”

하며 “정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국민총동원명령의 강제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것들이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가 만난 서정주’란 제목으로 시인 김춘수 김종철 이경 문정희 송수권씨 등의 추억담이 실렸고 특집논문으로 김종필교수(고려대) 김용직 김

### 열반 3주 성철스님 추모展

## 성철스님 열반 3주기를 맞아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모전시회가 열린다.

성철스님 열반 3주기를 맞아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모전시회가 열린다. 성철스님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모전시회가 열린다. 성철스님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모전시회가 열린다. 성철스님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모전시회가 열린다.

### 이경숙 기자

이경숙 기자는 이번달 학교법인 허가가 나는대로 대학건물설계도를 마친, 내년초 기공을 갖고 오는 98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 이중천 (동국대 교수)

이중천 교수는 이번달 학교법인 허가가 나는대로 대학건물설계도를 마친, 내년초 기공을 갖고 오는 98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분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역	주소	전화	팩스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천	경남 사천시 선곡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천	강원도 춘천시 의의동 141-3	0361)241-0633	
영주	경북 영주시 휴전1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9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릉	강릉 노담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톨키APT 810-902	344)912-2323	
강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長腦(장뇌) 山蔘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 수험생, 운동선수, 병후 몸조리를 하시는 불자들에게 최상품 산삼을 최저가격으로 인연을 맺어드렸습니다.

■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산지확인가능)

#### 장뇌산삼의 효능

- 산삼과 더불어서 신비한 원력을 주는 것으로 현대과학으로도 명확하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동의보감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신장질환, 뇌졸중, 당뇨, 간장질환, 저고혈압, 신경쇠약, 빈혈, 자궁질환, 강장효과, 심혈관기능 부전, 소화불량, 중앙등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 눈이 맑아지며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 집니다.
-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줍니다.

※ 특전 : 각종 자연건강 보조식품 및 보약을 염가로 일선해 드립니다.

전 화 주문처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